

제151호(2017. 7. 21.)

##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김정섭 이정해



1. 농촌 인구 변동에 관한 논의와 전망 .....	1
2. 귀농·귀촌 실태 .....	4
3. 시사점 .....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마상진 연구위원	061-820-2258	msj@krei.re.kr
내용 문의	김정섭 연구위원	061-820-2252	jskkjs@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론 논란 있으나 인구이동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총인구 중 농촌 인구의 비율은 2015년 18.4%를 기록,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처음으로 벗어남(농촌 인구 939만 2,000명)
  - 수도권에서만 나타나던 인구 순증 현상이 전국 농촌 시·군으로 확산되는 추세
  - 농촌 인구 증가의 주된 이유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 외국인 전입 등 사회적 요인
  - 향후 10여 년 동안 농촌 인구는 소폭 증가하다가 2030년 무렵부터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최근의 귀농·귀촌 인구 증가 추세 속에, 젊은 연령층의 귀농·귀촌도 확대**
  -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에 약 40만 명 수준이었다가, 2016년에는 49만 6,048명
  - 동반 가구원을 포함한 귀농 가구 인원은 2016년에 2만 559명
  - 귀농인 중에는 은퇴 연령층 비율이, 귀촌인 중에는 상대적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음
  - 50~60대 귀농 가구 비율이 66%에 달하며, 40대 이하 귀농 가구 비율은 28%로 그 수도 꾸준히 증가
  - 40대 이하 귀촌 가구가 전체 귀촌 가구의 63.9%
- **직업으로서 농업의 가능성과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가 귀농·귀촌의 동기**
  - 30대 이하 귀농인 가운데 53.6%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가업 승계, 실직 및 사업 실패 등의 직업적 이유로 귀농
  - 귀촌인의 모든 연령층에서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귀촌 동기가 가장 높은 비율
- **귀농·귀촌 정착 자금은 평균 1억 7,703만 원, 귀농인은 영농기반 마련에 평균 1억 2,073만 원을 사용**
  - 30대 이하 청년 귀농인은 평균 7,420만 원 투자, 젊을수록 신규취농에 자본 부족이 걸림돌
  - 자본 외에도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과 농촌 정착 초기의 소득 하락이 큰 어려움
  - 귀농 가구의 귀농 첫째 평균 소득은 1,782만 원으로 귀농 직전의 40% 수준
  - 농업소득만으로 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농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귀농·귀촌은 한국 농업을 이끌어 갈 인적 자원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이자, 농촌 지역사회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사회 트렌드**
  - 귀농·귀촌 인구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신규취농, 주거, 일자리 측면의 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론 논란 있으나 인구이동 변화에 주목해야

## 1. 농촌 인구 변동에 관한 논의와 전망

### □ 지방소멸론 논의는 일본에서 시작

- 2014년 일본 ‘지방창성회의(地方創成會議)’ 의장 마스다 히로야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2040년경 20~39세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구·정·촌)가 1,727개 중 896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sup>1)</sup>
  -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정부는 인구 전망을 토대로 2050년까지 인구 증감 지역과 무거주화 지역을 추정하고, 지방창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 ※ 무거주화 지역: 19%, 50% 이상 감소: 44%, 0~50% 미만 감소: 35%, 증가: 2%(일본 국토교통성, 2015)<sup>2)</sup>

### □ 국내 지방소멸론 논의

- 국내에서도 ‘마스다 보고서’ 방법론을 적용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소멸예상지를 분석
  - 이상호(2016)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의 상대비’가 0.5에 미치지 못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가 79개(34.6%)라고 주장<sup>3)</sup>
  - 박승규·김선기(2016)는 인구변화, 가임인구변화, 고령인구변화에 초점을 두고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인구감소 안정지역, 검토지역, 신중검토지역, 위험지역으로 구분<sup>4)</sup>
- 국내에서 전망한 지방 소멸 가능성은 인구의 자연 증감(출생, 사망)만을 고려하고, 귀농귀촌 등의 인구 이동 양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장기적으로 농촌뿐만 아니라 한국의 총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확실하지만, ‘지방소멸’이라는 표현이 유행하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응 논의는 오히려 실종되는 경향

1) 増田寛也(마스다 히로야). 2014. 『地方消滅: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増』, 東京: 中央公論新社.

2) 内閣官房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3)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봄호』, 4-17. 한국고용정보원.

4) 박승규·김선기. 2016.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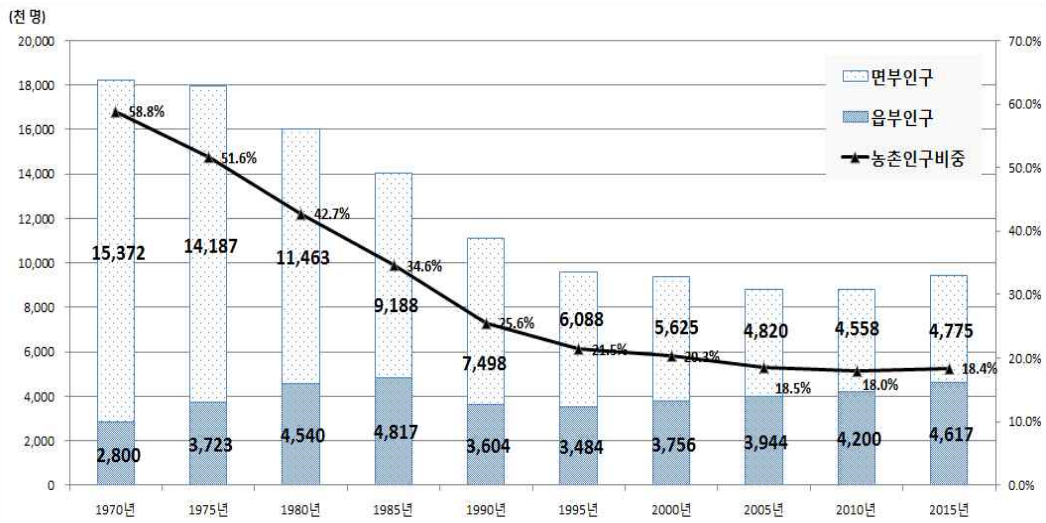


# 최근 농촌 인구 증가, 농촌인구 비율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

□ 2015년 농촌 인구는 939만 2,000명으로 5년 사이에 63만 5,000명 증가

- 농촌 인구 증가의 주원인은 자연적 요인(출생, 사망)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전입, 전출)
  - 최근의 농촌 인구 증가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 외국인 전입 등에 힘입은 것임
  - 2016년에 귀촌한 인구는 귀촌인과 동반가구원을 포함하여 49만 6,000명
  - 수도권에서만 나타나던 인구 순증 현상이 전국 농촌 시·군으로 확산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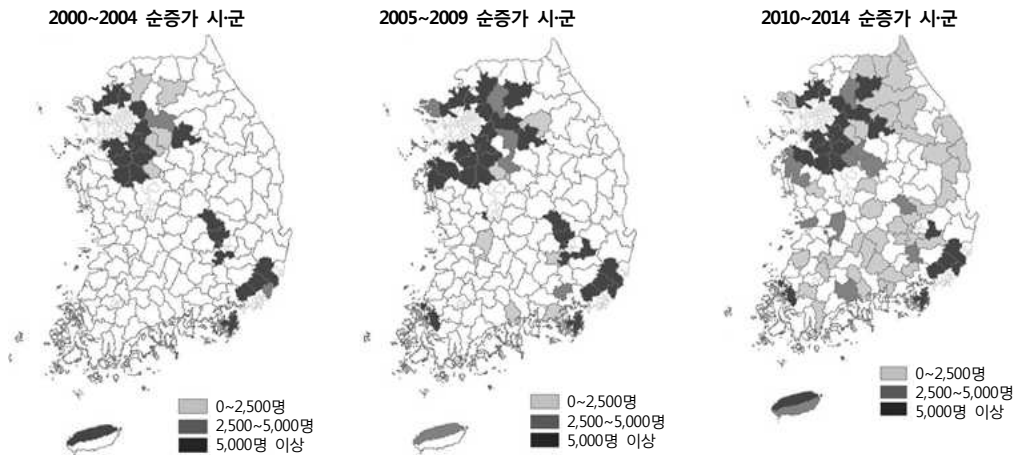
그림 1. 농촌 인구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내국인, 외국인 포함).

출처: 정도채심재현, 2017.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 인구 순증가 농촌 시·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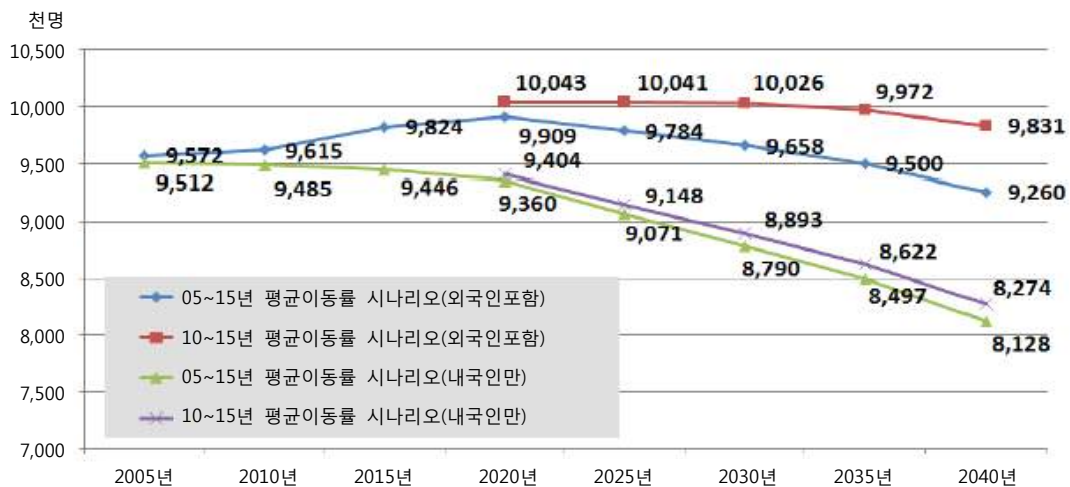
출처: 정도채심재현, 2017.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향후 10여 년 동안 농촌 인구는 소폭 증가, 그 이후 다시 감소세 전환

### □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가까운 미래에는 농촌 지역의 인구가 소폭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8년까지 약 930만 명을 유지하다 꾸준히 감소하여 2053년에는 약 8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sup>5)</sup>
- 인구 이동률에 외국인을 포함하면 농촌 인구 감소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sup>6)</sup>
  - 최근 5년(2010~2015년) 동안 평균이동률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외국인을 포함하여 추계하면 2040년까지 약 80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만 고려하면 감소폭이 커지고, 2040년 약 830만 명 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

그림 3. 2040년까지 5년 간격 농촌 인구 추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내국인, 외국인 포함).

출처: 정도채·심재현, 2017.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성주인·엄진영·박유진·정규형, 2014. 『농촌의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정도채·심재현, 2017.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과제”,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59-8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귀농·귀촌 인구 증가, 젊은 연령층 귀농·귀촌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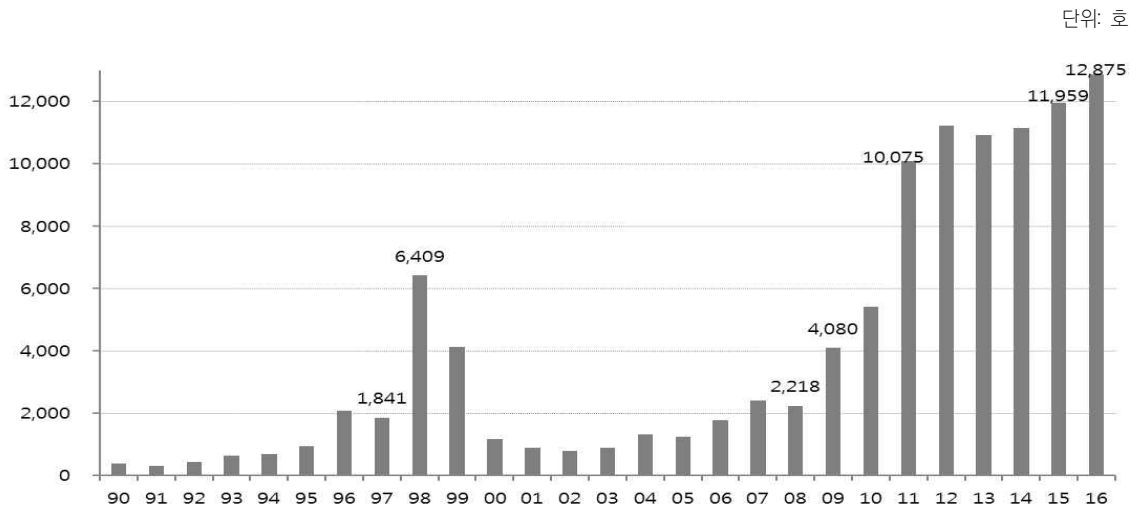
## 2. 귀농·귀촌 실태

### 2.1. 귀농·귀촌 인구 추세

□ 매년 귀농·귀촌 인구는 꾸준히 증가, 젊은 연령층의 귀농·귀촌도 증가 추세

-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40만 명이었는데 2016년 49만 6,048명을 기록, 3년 사이에 10만 명 가까이 증가
-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만 2,875가구가 귀농
  - 2011년부터 매년 귀농 가구 수는 1만 가구 이상을 유지
  - 귀농 가구주와 동반가구원을 포함하여 2016년에 귀농한 인구는 2만 559명

그림 4. 귀농 가구 수 추이(199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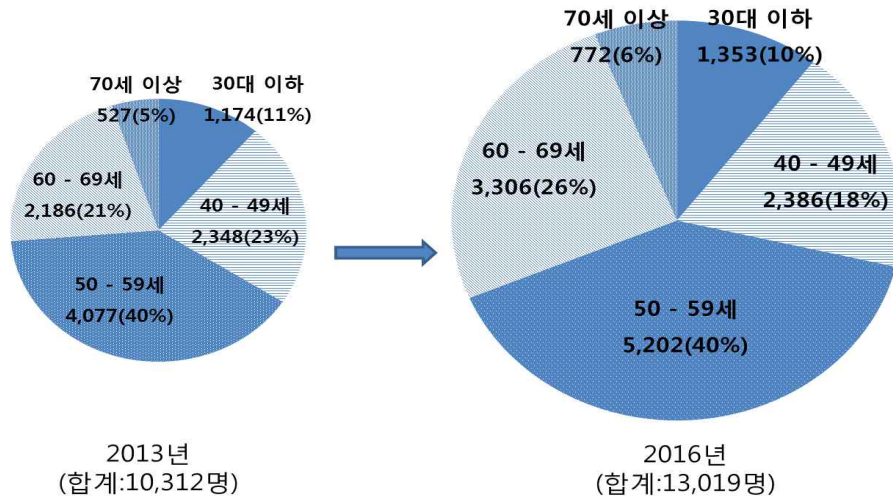


주 1)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치는 농림부의 자료다.  
2)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치는 통계청 KOSIS의 자료다.  
3)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귀농 가구 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동일한 조사 방법이 적용되었다. 2012년부터는 통계청이 귀농 가구 수를 집계하였는데, 행정 조사를 하지 않고 간접 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수치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www.kosis.kr), 농림수산식품부(2012), 농림부(2006), 농림부(1997).



- 귀농인 가운데 은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귀촌인 중에서는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2016년에 40대 이하 귀촌 가구주는 전체의 63.9%
  - 50~60대 귀농 가구 비율이 66%에 달하며, 40대 이하 귀농 가구 비율은 28%로 그 수도 꾸준히 증가

그림 5. 귀농 가구주 연령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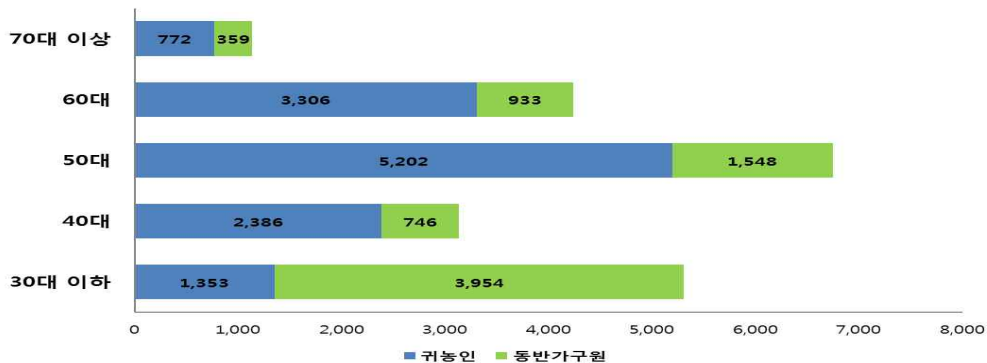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각 연도.

### □ 젊은 연령층의 귀농·귀촌은 농촌 인구 유지에 크게 기여

- 30대 이하 귀농·귀촌인은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농촌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타 연령대에 비해 농촌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
  - 30대 이하 귀농인의 평균 동반가구원 수는 2.9명으로 다른 연령층(40대 이상에서 평균 동반가구원 수는 0.5명에도 못 미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그림 6.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연령 분포(2016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인통계, 2016년.



# 직업으로서 농업의 가능성과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가 귀농귀촌의 동기, 주로 단독 주택에 거주

## 2.2. 귀농·귀촌인 정착 실태

### □ 농업·농촌의 가능성과 가치 그리고 생활환경으로서 농촌이 지니는 매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귀농·귀촌 인구 증가

- 일자리 대안으로서 농업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19.1%), ‘가업 승계’(4.8%), ‘실직 및 사업 실패’(5.7%) 등의 직업적 이유로 인한 귀농이 전체 귀농인의 29.6%이며, 특히 30대 이하 귀농인은 직업적 이유로 귀농한 비율이 53.6%로 높았음<sup>7)</sup>
- 자연환경 등 삶터로서 농촌의 매력이 귀농·귀촌을 유인
  - 귀촌인 모든 연령층에서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전체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높았음
- 도시 생활에 따른 피로가 가중되면서 농촌으로 탈출하려는 동기도 크게 작용
  -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촌한 비율 20.9%
    - ※ 30대(16.9%), 40(27.6%), 50(16.8%), 60(13.4%), 70대 이상(8.9%)

표 1. 귀농·귀촌 이유

단위 : %

구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을 보고	23.1	5.5	25.4	4.5	22.9	5.3	13.6	2.4	1.1	1.6	19.1	3.9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23.0	5.8	3.4	2.1	4.4	1.1	3.1	1.3	3.2	0.8	4.8	1.7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7.5	6.0	6.7	8.7	6.7	8.1	4.1	3.6	2.9	3.5	5.7	6.2
자연환경이 좋아서	9.9	27.4	17.2	33.7	25.7	39.7	42.4	39.0	37.3	34.8	29.4	36.7
가족 친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	1.8	19.1	9.4	13.0	7.5	13.9	5.8	13.1	16.4	12.2	7.5	13.8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17.8	6.9	5.2	9.2	10.5	9.8	10.2	15.1	21.9	24.1	10.7	12.4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11.5	15.9	23.4	16.3	15.1	14.9	11.8	16.5	7.7	11.9	14.7	15.4
비싼 도시생활비 때문에	5.4	8.1	4.2	5.6	1.7	4.0	1.6	5.3	1.2	8.4	2.2	5.5
자녀교육을 위해서	0.0	0.9	2.9	2.6	0.6	0.2	0.0	0.0	0.0	0.0	0.7	0.6
기타	0.0	4.4	2.2	4.3	5.0	3.1	7.4	3.8	8.3	2.7	5.2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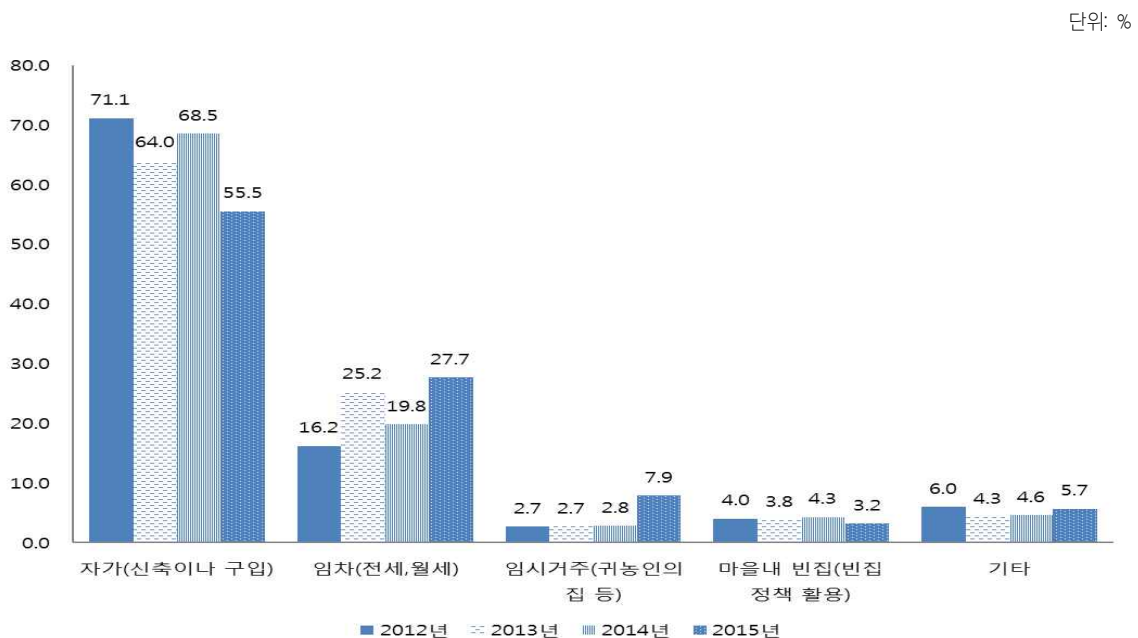
자료: 귀농·귀촌 실태 조사, 2016년.

7) 이하, 귀농·귀촌인의 정착 실태에 관한 내용은 2016년의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으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는 귀농인 및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다. 첫 실태조사를 2016년에 실시하였다.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 1,027가구, 귀촌 1,00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귀농 및 귀촌 연도와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표집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7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2개월이었다.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자 기입 방식을 택하였다. 귀농·귀촌 동기, 가구 현황, 주거, 농업생산활동, 경제활동, 지역사회 참여, 귀농·귀촌 준비, 만족도, 교육훈련,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가구 소득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77개 항목을 마련해 조사하였다.

□ 귀농·귀촌인 대부분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제일 많음

- 귀농 초기에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79.3%이고, 현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귀농인은 88.2%로 귀농 초기에 비해 소폭 상승
    - 귀촌인의 경우에도 단독주택 비율(74.7%)이 높지만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22.1%)도 많음
    - 일부 귀농인은 귀농 초기에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서 거주하더라도 차후에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는 비율이 높음
  - 귀농·귀촌인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가 비율이 낮으며, 귀농 초기에는 임차(전세, 월세), 임시거주(귀농인의 집 등) 등의 주택 점유 형태가 많은 편임
    - 30대 이하, 40대 귀농·귀촌인의 자가 비율이 50대 이상 귀농·귀촌인의 자가 비율보다 낮음
    - 귀농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자가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귀촌인은 귀촌 초기의 거주 형태를 유지
- ※ 2012년 귀농인: 임차(16.2%), 임시거주 및 마을 빈집(6.7%)  
 ※ 2015년 귀농인: 임차(27.7%), 임시거주 및 마을 빈집(11.1%)  
 ※ 2013년 귀촌인: 임차(26.4%), 임시거주 및 마을 빈집(2.7%)  
 ※ 2015년 귀촌인: 임차(28.5%), 임시거주 및 마을 빈집(3.7%)

그림 7. 귀농 연도별 거주 형태



자료: 귀농·귀촌 실태 조사, 2016년.

□ 귀농·귀촌 정착 자금은 평균 1억 7,703만 원으로 대부분 저축액이나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마련

- 연령대가 낮을수록 귀농·귀촌 정착자금 규모가 작음
  - 전체 귀농 정착 자금 평균은 1억 7,703만 원이나, 30대 이하 귀농인의 평균 정착자금은 7,680만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며, 30대 이하 귀농인의 60.4%는 정착 자금이 1억 원 이하
  - 귀촌의 경우에도 평균 정착자금이 1억 7,125만 원이나 30대 이하 귀촌인의 59.9%가 1억 원 이하
- 귀농인 74.1%, 귀촌인 82.0%가 저축액이나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
- 주로 농지 구입 및 임차, 주택 마련 등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 귀농인은 주로 농지를 확보하는 데 자금을 사용하였고, 주택 마련에도 우선적으로 자금 사용
  - 귀촌인은 주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자금을 사용하였고, 생활비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음

표 2. 정착 자금 주요 사용처(1순위+2순위)

단위: %

구분	농지 구입 및 임대	주택마련	영농시설 자재구입	생활비	농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	기타
귀농	65.4	61.1	31.1	22.2	9.2	3.1
귀촌	37.9	81.9	6.3	49.3	2.8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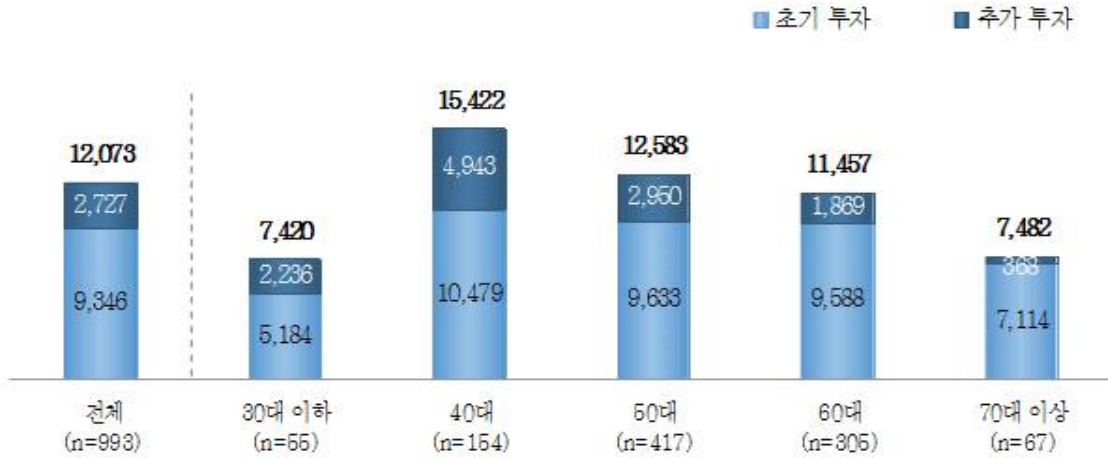
주: 정착 자금 사용처 중 주요한 사용처 2개를 고른 결과  
 자료: 귀농·귀촌 실태 조사, 2016년.

□ 귀농인이 농지나 가축에 투자하는 평균 금액은 9,195만 원, 시설에 대한 투자액은 평균 5,250만 원

- 초기 투자에 비해 추가 투자는 적은 편이며, 추가 투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귀농인의 80%
- 40대 귀농인이 농지, 가축, 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30대 이하와 70대 이상 귀농인의 농업 투자액은 타 연령층에 비해 저조

그림 8. 농지·가축·시설에 대한 투자

단위: 만 원



자료: 귀농·귀촌 실태 조사, 2016년

□ 젊을수록 ‘농지 및 시설 투자 시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

- 30~40대는 향후 영농 규모 확대에 적극적이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농지 및 시설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실정
  - 40대 귀농인 중 ‘농지 및 시설 투자 시 자금 부족’을 어려운 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43.1%로 가장 높았음. 타 연령층에 비해 적극적인 투자 성향이 있으나 보유 자산이 부족하여 충분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 30대 귀농인 중 ‘농지 및 시설 투자 시 자금 부족’이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2%로 경제활동 기간이 짧아 농지 및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연령대별 영농활동 수행 시 어려움

단위: %

구분	영농기술/경험 부족	농지 및 시설 투자 시 자금 부족	재배품목의 판로 부족	건강/체력 부족(과다한 노동량)	운영비 부족	재배품목의 높은 가격 변동성	기타	
귀농	30대 이하	33.4	<b>33.2</b>	9.2	5.9	11.5	6.8	0.0
	40대	23.8	<b>43.1</b>	14.6	9.2	3.4	2.2	3.6
	50대	35.2	31.0	10.5	4.6	5.9	4.3	8.5
	60대	44.5	21.0	11.7	9.4	6.0	1.6	5.9
	70대 이상	35.7	13.3	7.1	<b>25.7</b>	7.4	3.1	7.6

자료: 귀농·귀촌 실태 조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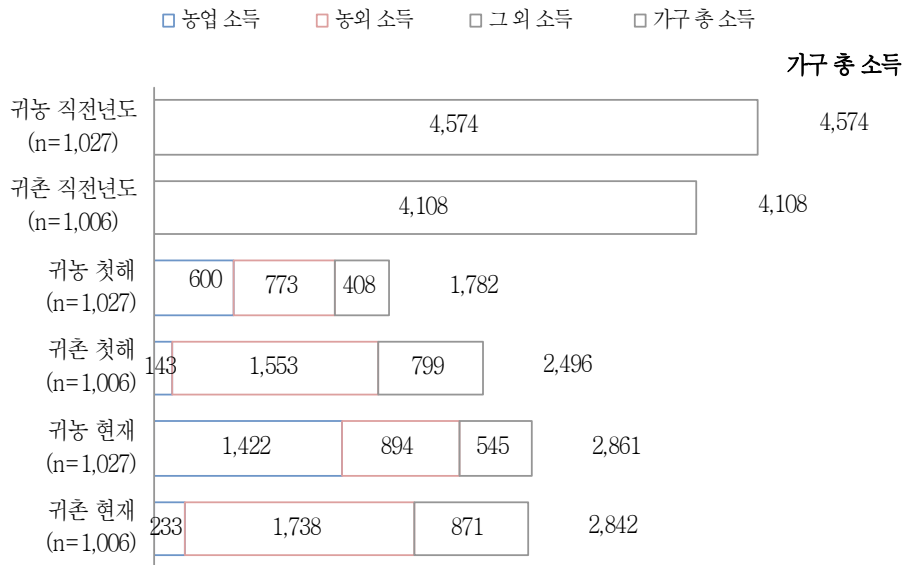
## 귀농·귀촌 정착 초기에는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곤란

□ 귀농·귀촌 직후에는 도시에 살던 때보다 가구 소득이 크게 감소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추세

- 귀농 가구의 첫해 평균 소득은 1,782만 원으로 귀농 직전 소득의 약 40% 수준
  - 귀농 첫해 평균 농업소득은 600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1/3 정도를 차지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3~4년 뒤에는 1/2 정도로까지 상승
  - 귀농 첫해 평균 농외소득은 773만 원으로 농업소득보다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894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가구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

그림 9. 귀농·귀촌 전후 가구소득

단위: 만 원



자료: 귀농·귀촌 실태 조사, 2016년.

- 귀농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첫 귀농 연도별로 보면 2012년과 2013년에 귀농한 가구 중 40% 이상이 가구 총 소득 3,000만 원을 초과
  - 2015년에 귀농한 가구 중 가구 총소득이 없거나 2,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61.9%이며, 2012년 귀농 가구에서 그 비율은 37.8%
  - 평균 농업소득과 가구 총소득은 귀농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여 귀농 이후 3~4년이 지나면 농업소득은 1,000만 원 후반 수준, 가구 총 소득은 3,000만 원 초반 수준

□ 농업소득만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데 한계, 많은 귀농인이 농외 경제활동에 참여

- 귀농인의 45.3%는 농업생산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
    - 농업생산 이외의 경제활동으로 농산물 가공이나 농산물 직접 판매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11.4%)이 가장 높았고, 자영업(9.3%), 일반직장 취업(8.4%) 순임
    - 귀촌인의 경우 61.9%가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농업에 본격적으로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사일을 하는 비율도 20.1%로 높은 편
    - 귀농 이후 농업생산 이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 ‘농업소득이 적어서’(72.9%)가 가장 많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12.8%)가 두 번째로 많았음
  - 귀농·귀촌인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본금 부족’이 농업생산활동 이외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귀농·귀촌인 모두 ‘본인 능력 부족’,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가 부족’, ‘인맥 부족(네트워크)’, ‘지역 내 인프라 부족’ 등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음
- ※ 귀농인: 48.2%, 귀촌인: 69.0%

표 4. 연령대별 농업 생산 활동 이외의 경제활동 수행 시 어려움

단위: %

구분	본인 능력 (지식, 기술) 부족		시간이 없어서(가사, 육아 포함)		자본금 부족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가 부족		지역 내 인프라(교통수단)부족		인맥 부족 (네트워크)		어려움 없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30대 이하	27.4	20.3	23.5	8.7	<b>26.5</b>	<b>18.6</b>	<b>6.5</b>	<b>25.5</b>	<b>2.2</b>	<b>11.8</b>	<b>3.6</b>	<b>10.0</b>	9.0	2.1
40대	23.8	16.7	26.3	11.3	<b>22.9</b>	<b>15.2</b>	13.0	25.2	1.3	13.9	4.6	9.3	6.5	8.0
50대	26.6	24.4	25.5	10.7	16.5	11.5	13.9	22.0	1.8	18.1	6.0	4.4	8.7	6.1
60대	29.2	27.9	22.3	8.5	12.2	6.9	15.8	26.2	0.2	11.7	5.3	6.8	11.7	6.2
70대 이상	<b>39.6</b>	<b>36.9</b>	15.0	6.9	4.5	7.4	14.0	17.7	2.1	5.6	1.9	6.5	16.1	6.0

자료: 귀농·귀촌 실태 조사, 2016년.

□ 귀농인 및 귀촌인은 토박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활동에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귀촌인보다는 귀농인의 참여도가 높은 편

- 농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도시와 달리 농촌의 특징적인 생활양식이며,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귀농인 및 귀촌인 개인에게도 필요한 활동
  - 농촌에서는 경제활동 기회에 접근하거나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매개로 작용
- 농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친목 도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마을 회의나 행사에는 귀농·귀촌인 대부분이 참여
- 귀촌인이 지역 농업/농민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는데, 귀촌인이라 하더라도 농촌 정착 과정에서 농업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표 5.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

단위: %

구분	구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자주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자주 참여하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음	가끔 참여함	참여함	거의 참여하지 않음
		귀농	마을 회의나 행사	6.3	27.8	22.6	26.0
	지역 농업/농민 단체	5.9	17.7	15.1	18.7	57.4	42.6
	일반 사회단체	4.1	15.0	14.4	15.8	49.3	50.8
	귀농·귀촌인 모임	7.3	19.4	13.8	13.5	54.0	46.1
귀촌	마을 회의나 행사	2.6	14.1	18.5	29.0	64.2	35.7
	지역 농업/농민 단체	1.0	4.6	6.0	8.9	20.5	79.4
	일반 사회단체	2.1	7.3	6.7	10.2	26.3	73.8
	귀농·귀촌인 모임	2.1	6.5	6.9	8.7	24.2	75.8

자료: 귀농·귀촌 실태 조사, 2016년.

표 6.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귀농인, 귀촌인의 참여 동기

단위: %

구분	구분	친목을 도모하려고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고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취미, 재능개발 등 자아실현을 위해	주변의 권유로 인해	기타
		귀농	마을 회의나 행사	88.0	1.3	3.6	2.7
	지역 농업/농민 단체	68.4	16.2	4.9	4.6	4.2	1.7
	일반 사회단체	73.8	5.5	8.4	9.1	2.5	0.6
	귀농·귀촌인 모임	79.5	7.0	2.5	6.2	3.4	1.4
귀촌	마을 회의나 행사	88.0	1.2	4.5	0.6	4.9	0.7
	지역 농업/농민 단체	65.5	14.0	3.7	10.2	6.4	0.2
	일반 사회단체	69.5	4.4	7.6	13.1	5.0	0.5
	귀농·귀촌인 모임	77.9	4.0	2.2	7.2	5.2	3.6

자료: 귀농·귀촌 실태 조사,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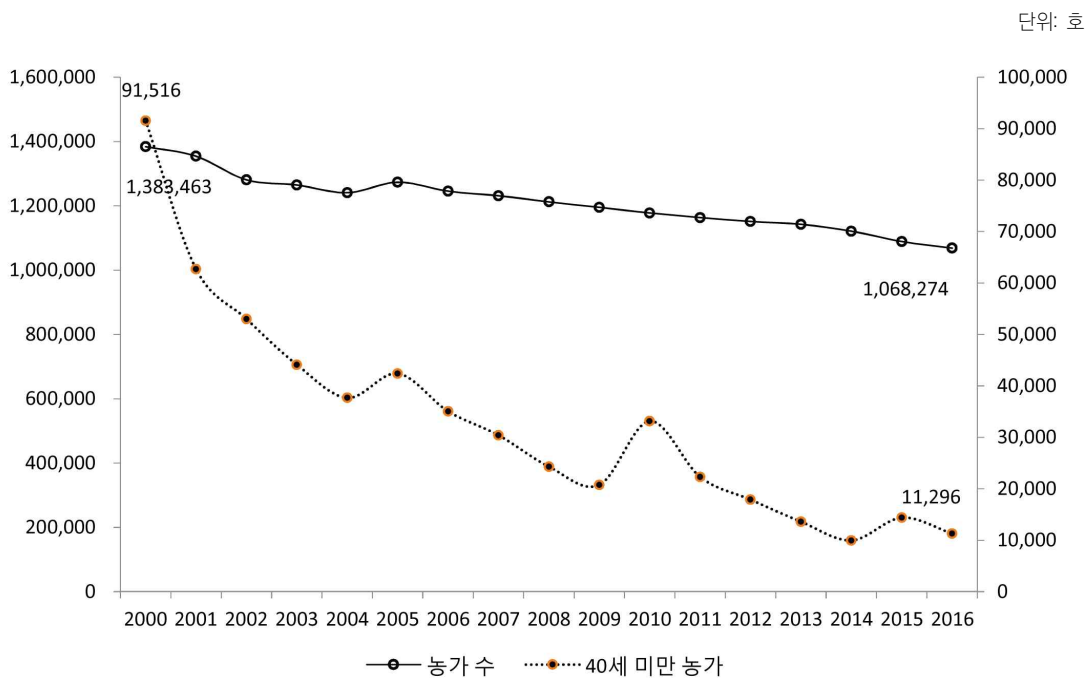


### 3. 시사점

□ 한국 농업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 극단적인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 농업에 새로이 진입하는 청년 인적 자원의 대부분은 귀농인

- 2000년에는 전국 138만 농가 중 6.6%가 40세 미만 농가였으나 계속 감소
  - 2016년 기준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1만 1,296가구에 불과
  - 청년 귀농 가구가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1,000가구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년 신규 취농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귀농 가구일 것으로 추정
- 귀농 동기, 신규 취농자 집단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30대 및 40대 연령 층의 귀농이 한국 농업의 인적 자원 재생산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농촌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그림 10. 농가 및 40세 미만 농가 수 감소 추세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 젊은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농업 부문 인적 자원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규 취농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 필요

- 영농 경험 및 기술 부족, 초기 정착 과정에서 생계비 문제, 토지 등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본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

□ 귀농·귀촌 인구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다양한 분야의 농촌발전 기획으로 이어지는 사례 등장

- 농촌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동 조직 활동 참여가 두드러짐
  - 귀농·귀촌은 농촌 지역의 사회 자원을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중요한 계기

귀농인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관련 창업활동 사례

- \* 전북 장수군, 방과 후 학교 수업 위탁 협동조합 ‘초록누리협동조합’
  - 친환경농업과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던 장수군 하늘소마을의 귀농 가구 여성들과 토박이 주민들이 결성한 협동조합
  -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귀농인들이 지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존에 수행한 바 있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민과 귀농인이 함께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귀농 가구 가구원 5명 포함, 조합원 14명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 중
  - 지역의 학교 밖 교육 서비스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귀농·귀촌 청년의 농촌 복지 증진 활동 사례 ‘여민동락공동체’

- \*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모임인 ‘여민동락’은 귀농·귀촌 및 토박이 청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농촌 복지를 증진하는 지역사회 활동 전개
- \*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센터’ 운영
  - 정부의 법규에 맞춰 자격(사회복지사 2급,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갖추고 시설 운영
  -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는 11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 보살피는 활동
- \* 거동할 수 있지만 빈곤하거나 소일거리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더불어살아사회적협동조합’ 결성
  - 일거리가 필요한 어르신들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모시잎송편의 재료가 되는 모시풀을 재배하고, 모시잎송편 생산
  - 지역의 특산품인 모시잎송편을 생산·판매하여 어르신들에게 수입 제공
- \* 인구가 줄어 이익을 남길 수 없자 사라진 생필품 가게를 대신하는 ‘동락점빵’이라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귀농·귀촌인을 포함 주민 370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
  - 청년들이 지역의 42개 마을 300여 고령 농가에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
  - 지역의 중소 고령농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공급
  - 매주 목, 금요일 트럭을 운행하여 생필품을 공급하고 판매 물품 수집
  - ‘동락점빵’ 협동조합의 청년들은 지역돌봄 공동체의 리더로 양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조합 수익금을 마을복지증진 목적으로 환원

## □ 귀농·귀촌은 지역 균형발전 및 농촌 활성화의 촉매로 작용할 중요 계기

- 단지 지방소멸론에 대한 대응 논리 차원을 넘어 귀농·귀촌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서 귀농·귀촌 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 인구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주거와 일자리 측면의 정책을 확대하고, 정착한 이들이 농촌 지역사회의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도와야 함
- 법률에 따라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 2017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바, 계획된 다양한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함
  - 2000년대 중반 도시-농촌 인구이동 패턴이 전환되기 시작할 무렵 기획된 참여정부의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 이후, 귀농·귀촌은 중요한 정책 의제로 논의됨
  - 2015년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5년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음
  -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은 5대 추진 전략, 17개 과제로 구성됨
    - ※ 5대 추진 전략: ‘청년층 농업창업 중점 지원’,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일자리, 주거 등 정착 지원 강화’, ‘귀농·귀촌 저변 확대’,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융화 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개편’

---

**KREI 농정포커스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7. 7. 21.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운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현, 구자춘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mailto:admin@han-d.co.kr)

---

ISBN: 979-11-6149-042-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